

# 주일 2 부예배

10시 15분 - 전교인 찬양 연습

※ 예배로의 부름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송 영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목 회 기 도 임영규 장로

봉 헌 / 감 사 봉헌: 김기연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 성 도 찬 양 황무지가 장미 꽃 같이  
(새 242: 1,3 절)

교 회 소 식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11(창 1:4)  
“**빛사이와 어둠 사이를 나누사**”  
출 26:33 신 4:11 사 59:1-2  
행 2:36-38 사 60:1-3

찬 양 / 기 도

-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 하늘 보좌 떠나서(새 437)

※ 축 도 강래성 목사

##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연 보	2,630
감사연보	500
특별수입	43,200
합 계	46,330

## 월별사역계획

매주일오후 3시-당회

첫째주-한가족특강

둘째주-동산모임

셋째주-부서별 모임

넷째주-소그룹 모임

다섯째주-제직회

성찬 -2월, 4월,  
7월, 11월

## 6월 회중기도 및 봉사 명단

	주일 1부	주일 2부	수요기도회	봉헌자
첫째	서성권	이익로	이영옥 (6/06)	김기연
둘째	우대성	임영규	임순희 (6/13)	
셋째	유창환	정윤구	정선희 (6/20)	
넷째	전현석	최용제	조재은 (6/27)	
다섯째				

# 교회의 교회됨 8

현대 교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목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단으로 가득하고, 이러한 목사로 인해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돈 문제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서로 힘을 겨루는 기류가 흐르고 있고 직분자를 세울 때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이 주장하는 명목은 개혁이다. 고치고 바꾸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교회가 산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개혁하여 새로워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결국 제도적인 것들이다. 목사는 권위의식을 버려야 하고, 헌금을 강조하지 말아야 하며,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봉사자로 함께 해야 하고, 직분자를 세울 때도 헌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것들을 실천하면 진심으로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생히 살아있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로워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앞서 말한 외적인 부패성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식이 조금만 있다면 외적인 부패성은 금방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식이다. ‘지금의 교회로는 안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차별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속셈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마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타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 하여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상술과 같은 것이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성경의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뜯어 고치고,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상을 드러낸다고 해도 결국 악한 인간이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제도를 고치고 몇 가지 바람직한 규례를 세워서 실천한다고 해도 인간으로 인한 문제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고 말하는 것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이다. 즉 바른 삶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삶의 길로 들어서면 자연히 붙들 것과 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붙들 것을 붙들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다.

# 교회 소식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전재철 선교사님 멕시코 사역지 1 일 봉사  
7/28/18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6 시에 출발 (문의:서성권 집사)
- ❖ 묘지 처분 관련
- ❖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가족 특강 (7 월: 창세기)
- ❖ 에덴 북방개장 - 도서 대여기간은 2 주 (문의:이의로 집사, 조재은성도)
- ❖ 전재철 선교사님의 사역(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

##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	-1 부- 오전 9:00, 2 부- 오전 10:30 -EM (youth) - 오전 10:30, Jonathan Kim “Bacs Against the Wall” 1 Samuel 13 -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20-24
수요기도회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침례의  
의의  
올바른  
신실한  
행집행  
선포

제 2018 - 23 호

2018년 6월 10일

## 주일 1부 예배

※ 예배로의 부름 빛나고 높은 보좌와 (새 27)

목회기도 우대성 집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8 주일) 제 48 문 (인도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뉘는 것입니까?

답 (회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

봉헌기도

설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11  
“빛사이와 어둠 사이를 나누사”  
본문/창 1:4

※ 찬양 하늘 보좌 떠나서 (새 437)

※ 축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http://www.edenpchurch.org C:714.733.3486

